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요나

아밋대의 아들 요나

(은 1:1-3)

Jonah, the son of Amittai

(Jonah 1:1-3)

요나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가장 홀대 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 그들은 단순한 설화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서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합니다(눅 11:32, 마 12:39-40).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듯 요나의 사건 역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The book of Jonah is one of those books that is treated very unkindly by liberal theologians. They regard it as a foolish slip of the tongue that a person could be in the belly of a fish for three days and then get out alive. However, the Bible proves that the book of Jonah is clearly a historical fact (Luke 11:32, Matthew 12:39-40). The event in which Jonah was in the belly of a fish for three days and then got out illustrates the message that our Lord Jesus Christ was raised after three days. Just a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a real fact, so also Jonah's event is a real fact.

1. 선지자 요나

요나는 성경에 그리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왕하 14:25에 의하면 그는 매우 깊은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주전 780년경의 인물로서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인이며 미가보다는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1절).

요나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고, 사명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니느웨 백성들을 왜 구원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탁월한 신학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아밋대의 아들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 요나의 현실

아름다운 신앙고백의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 요나는 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들은 척 했으며,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흔쾌히 순종하기에는 니느웨에 대한 민족역사의 배경이 만든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편견이 너무도 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일로 다른 사람들까지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갇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다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여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 The prophet Jonah

Jonah is not mentioned much in the Bible, but we find that according to 2 Kings, he was brought up in a faithful family, and was a prophet at around 7,800BC, a contemporary of the prophets Hosea and Amos ahead of Micah's time.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son of Amittai” (v. 1).

So Jonah was raised in the most faithful and famous household at that time, was called into God's work, and became a prophet. He had the spiritual giftedness to hear God's word and knew the necessity of obeying God' word. But God's word was different from Jonah's ideals.

God wanted to save the people of Nineveh. However, Jonah was not able to understand why God would want to save a people like Nineveh, who were a thorn in Israel's side.

Although Jonah clearly believed in God and had theological knowledge, he only remained at the level of the son of Amittai. He was not able to possess God's heart.

2. Jonah's reality

This great prophet, Jonah, was a hero with a beautiful faith confession, and he received God's word. But in the verse 3, it says 'but' he tried to run away from the Lord. He pretended not to hear God's word, and headed in the direction of disobedience to God's command.

God told Jonah that he should go to Nineveh, and proclaim a message of repentance to save them. However, his individual human prejudice, which was formed b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his nation, was so deep that he was not able to obey God's command. So he went aboard a ship and sailed for Tarshish to flee from the Lord, drawing many other people into danger. And then, he was shut up in the belly of a fish for three days.

My beloved Christians!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in Jesus Christ? The Apostle Paul confessed the following: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 2:20).

If we live in Jesus Christ, we are a new creation. If the gospel has reached us, we must possess Jesus Christ's heart along with Him. Therefore, we must offer a sacrifice to the Lord when our life is born again and changed.

By joining our spirit with the heart of Go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무너진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일본 지진 난민』돕기, 구제헌금 드리기로
3월27일, 주일예배 시간에

지난 3월11일(금) 오후2시46분 일본 동북부에 최대 진도 9.0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10m이상의 해일을 동반한 쓰나미로 평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대처 능력을 자랑하던 일본이었지만 최악의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원전 방사능 누출 소식과 아직도 진도 6.0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에 일본은 절망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일본 지진 난민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3월27일(주) 주일예배 시간에 드리기로 하였다. 교회 계획대로라면 선교헌금을 드리는 달이지만 천재 지변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일본을 위하여 특별히 구제헌금을 드리기로 한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진 일본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회복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구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센다이에서 구조활동 중인 대한민국 중앙 119구조대원
(사진 출처: 국민일보)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22일(화) 오후7시30분, 101호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22일(화) 오후7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열린다.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날 강의는 박노철 목사가 진행한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여 교육을 받기 바란다.

제15회 화요 정오 음악회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한 제15회 화요 정오 음악회가 4월12일(화)부터 5월24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정오 본당(관람은 3층)에서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19일(화) 강민정 오르간 독주회
- 4월26일(화) 김현정 오르간 독주회
- 5월3일(화) 차주연 오르간 독주회
- 5월17일(화) 조인형 오르간 독주회
- 5월24일(화) 최인경 오르간 독주회

2011농어촌100교회운동지원현황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구좌(2인)
강원노회	고한남부교회	방은근 목사	마리아	2
			박을 일광호(김정미13) 주희인 정진문 주동재(김동진) 윤태욱(박순복)	1
			에스더 제2스대반회	3
	춘천동산교회	김창부 목사	제2권사회	2
			엘리아	1
			이장인(희숙) 김경곤(김수정)	0.5
	서흥교회	김광근 목사	한나 제1스대반회	2
			모세	1
			이인표 김관규(윤혜련)	0.5
	금명교회	이혜민 목사	제1권사회	2
			이삭 리브가	1
			이상욱 최향봉	0.5
	금대교회	유용수 목사	한나	2
			아브라함 살롬권사회 박정자4 김천태(김숙순) 이호 원경희 이조훈(이교은) 송재현(선순래)	1
			청년1부 홀몸부교사	1
가정리교회	이영기 목사	이상욱 최향봉	0.5	
		이광배5	2	
		차도훈(남태영) 전광영(김인숙) 유현주(이은미)	1	
나전중앙교회	이주형 목사	교역자회	1	
		오혜경 김장섭(최순숙)	0.5	
		박경정(이인보) 김윤욱	1	
목포동 노회	모도교회	한정배 전도사	박미경5 최원석(박길희) 윤명구 노진아 이상은 도중섭(이미경)	0.5
			신용식(김신영1) 노재현 이상호2 박찬희	1
			전교인 황병석	0.5
송광교회	김상도 목사	강수남(송경옥) 노병희(방덕자) 임홍수	1	
		김정희10 정철수 김태기(김오은)	0.5	
		박지훈1	2	
개인후원	송산교회	별곡교회	박지훈1	2
			하극수(조영자)	1
			노병호(홍지나)	1

3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2독> 5교구 이운영 권사 6교구 유을상 집사
- <1독> 2교구 최형열 집사 6교구 김희진 권사
- 10교구 김재근 집사 10교구 이완형 장로
- 12교구 김진영 권사 12교구 나기태 권사
- 13교구 김경숙 집사

10원(구형) 동전 모이기동참

성도들의 만남과 대화의 장으로 사용되는 만나 홀(801호)에서 주일에는 커피자판기의 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판기 특성상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기에 10원(구형) 동전을 필요로 한다. 구형 10원 동전의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구형 동전은 이제 주조가 되지 않아 수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도들이 10원(구형) 동전을 모아서 교회에 기부하면 10원(구형) 동전은 주일 성도들에게 차를 무료로 대접하는 도구로 유용히 사용될 수 있다. 동전은 사무국에서 접수받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는 8층 식당(만나 홀)에서만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이는 음식물 쓰레기와 부스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에는 해충의 번식이 왕성해져 출몰 빈도가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꽃샘 추위가 장기간 계속되어 기온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해충이 실내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실내 습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절하고, 교육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하기 바란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요기도회 자원봉사자 모집

금요기도회 참석자의 증가로 지난주부터 본당에서 기도회를 모이게 됨에 따라 늘어난 영아(0세-12개월) 및 유아(13개월-4세)들을 돌 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 아기를 돌보는 봉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 또는 교구목사에게 신청하기 바란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긴급기도부탁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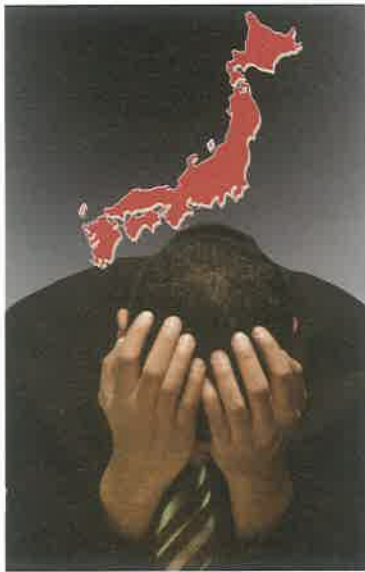
존경하는 이종운 원로목사님과 박노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3월11일 금요일 오후2시46분에 발생한 진도9도의 동북지방의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의 교회들과 크리스천 및 일본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3월15일 화요일) 뉴스에서 사망자와 행방불명 인원이 8천4백 명을 넘었고 앞으로 1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하여 방영되는 소식에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쓰나미에 떠내려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남편과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집도 가족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과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힘들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들로 대피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일로 이산가족이 되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하여 자위대 10만명 이상을 구조에 투입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구조대원들과 함께 구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일본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현의 원자로 폭발이 더 이상 없도록, 방사능 피해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관동지역에 쓰나미와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일본을 주께로 돌이켜 주사 지금 이때에 꼭 들어야 할 영원한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

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주께 아뢰며,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쓰나미와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빠른 회복과 아픔과 고통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허창범 현미순 선교사 드림

사순절의 기도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감감하실까
얼마나 놀라우실까

생명의 신비
죽음이 부활의 통로임을
알게 하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오나
우리의 욕망과 탐욕 가식으로
가득찬 자야를 뜻박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 박힌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뜻박는
사순절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남태순권사(12교구)

새가족부 수료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태승 성도(16교구)

저는 작년 6개월을 영국의 작은 도시 북머스에 머물렀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하던 영국 회사가 유럽의 금융위기에 파산하게 되었고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했던 저희 회사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영국 내 자산을 인수하고 핵심인력을 채용하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직장생활 25년에서 가장 큰 위기였으며,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저로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말에 귀국한 저는 2011년 1월 2일 가족이 다니고 있던 서울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오랜 시간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교회를 정하고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회에 등록하는 즉시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세월 교회생활을 계속해 온 제가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 하는 의문과 회의가 있었으나 집사님, 권사님으로 이루어진 교사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절한 안내, 기독교의 진리와 교회생활을 아주 이해하기 쉽

게 가르쳐주신 전도사님, 어색하기 쉬운 순간들을 풍성한 교제로 꽉 채워주신 많은 새가족부의 교사들의 도움으로 저는 8주간의 교육과정을 편안하게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시간은 저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서 회미해졌던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는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저는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서울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하여 깊게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아내와 함께 소요리문답부에서 장로교 교리를 더 깊게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교회에 등록된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보살펴주신 두 분 교사님 그리고 짧은 시간 명쾌한 강의를 통하여 있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전도사님, 그리고 서울교회를 찾아온 새가족들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새가족부 모든 분들께 새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의하나님

하나님 뜻을 이뤄 드리는 도구로

이종욱 집사(3교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의 신장으로 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종욱 집사입니다.

저는 20대부터 B형 간염으로 3-4년 입원하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7년만에 기적적으로 간염항체가 생겨 완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약 2년 전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조영제로 인한 신장 손상이 있었고 1년 전부터는 급속하게 신장이 나빠져 신장이식 또는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 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전해질 이상이나 폐에 물이 차지 않아 투석은 피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성신부전이 되었을 때 매우 당황하기는 했지만 과거에 간염이 낫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눈에 보듯이 느끼고 있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다.

매일 새벽예배와 금요기도회에서 땅에 떨어지는 떡부스레기라도 달라고 호소하는 가난한이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더욱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또한 가족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배가 거듭될수록 두 딸의 신앙도 같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에서의 수술이 어렵게 되자 이제는 해외에 나가 수술을 받을 결심을 하고 알아보던 중 저와 혈액형이 다른 아내가 자기의 신장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혈액형불일치 신장이식은 최근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술로 국내 몇몇 소수 병원에서만 시행하는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신장이식외과에 입원하면서 사실 처의 얼굴을 미안해서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수술이 잘 못되거나 거부반응에 의해 이식신장을 잃게 되는 일이 있을까봐 너무 초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후로 금요기도회에서 박노철 목사님의 강력한 기도와 성도님들의 도고 덕분에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처와 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전까지의 한숨이 기쁨으로 변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할 때 거울에 비친 수술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내의 사랑,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도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영과 육이 모두 거듭나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투병과정 속에서 깨닫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48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뜻을 이뤄 드리는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임마누엘찬양대에 서 솔로이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박세아(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박주리(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이민주(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성도의 3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F.Mendelssohn)' 외 두 곡을 박승기 성도(고등부 반주)의 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0일(주일) 청주 동산교회(이성득 목사) 창립60주년기념감사예배 설교한다.

■ 취임 : 임영숙 집사(1교구) 안양YWCA회장

■ 이사 : 우상태 집사(방송회 권사)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7단지 713동 1204호
이승철 성도(우사라 성도)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7단지 703동 1102호
최봉규 성도(우보라 성도)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2단지 207동 602호

■ 주간식당봉사: 도르가전도회(3.20) 루디아전도회(3.27)

■ 금주의 식사제공: 최무순 권사 가정
김창훈 집사 전정순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김세환 집사 금요기도회 특별 찬양

3월 25일(금) 오후 8시 20분

가수 김세환 집사가 2011년 3월 25일(금) 오후 8시 20분 금요기도회에서 특별 찬양을 한다.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는 김세환 집사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살아계신 주', '사랑은' 등 찬양곡 3곡을 부를 예정이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금요기도회가 참여 성도 수 증가로 2층 분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고 있다. 더욱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주변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웃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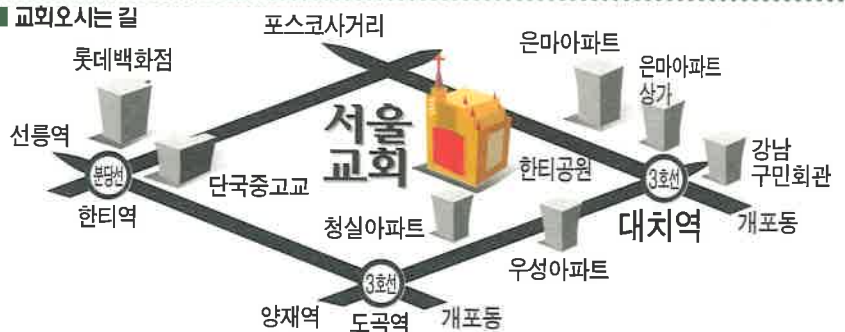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음세대의 부흥의 비전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사연합기도회를 위하여
2. 다락방 훈련과 금요심야기도회의 지속적 부흥을 위하여
3. 일본의 원전위기가 조기진화 되고, 대지진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며, 일본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계기가 되도록
4. 북한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예배 및 집회